

결혼 생활 잘 하려면... '손해 보는 것이 이익'

결혼할 때는 누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 이 마음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들떠 있지만, 살다보면 결혼생활이 항상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라 결국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잘하려면 상대방에게 덕 보려 하지 말고 '손해 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스님은 <법구경>의 말을 빌려 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막상 결혼을 해 놓고 3개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다.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던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하루 밤 사이 갑자기 원수투 돌변하기도 한다.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상의 인과(因果)법칙과 모든 인연에는 과보가 따름을 말한다. 스님의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은 단순히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방법론을 보여 주는데 그치지 않고, 인과관계의 질서를 일깨우는 인연론이자 스스로의 삶에 몰입을 던지는 인생론, 다른 존재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관계론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마음발을 일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저자인 법륜 스님은 부부사이의 갈등 원인과 행복하려고 한 결혼생활에 왜 괴로움이 들고 도는지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 불법 속 사성제를 통해 현실 속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은 비린내가 배어 며칠이 지나도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향을 찔던 종이 역시 종이에 향내가 배어 향을 찔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스님은 결혼생활의 괴로움은 "상대에 덕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다. 매순간 향기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두고두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다. 지난 인생은 다 흘러가 버린 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 자신이 뿌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거두게 된다는 것이 우주의 질서다.

결혼을 하기 전, 우리는 누구나 선도 보고, 다른 이성을 사귀기도 한다.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보기 시작한다.

스님은 "배우자와 남을 닮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나는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행복과 불행이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이치를 알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당부한다.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떤가, 지위는 높은가, 외모는 아름다운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고민한다. 돈이 없으면 돈 있는 남자를 구하고, 외모우면 외모움을 탈래줄 사람을 구한다.

스님의 주례사 | 법륜 지음 | 휴 퍼블 | 1만2000원

법륜 스님은 "하지만 이런 지극히 자신의 이기심에서 시작된 관계"라며 "이런 관계는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된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나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



결혼 육아서 2選

과거 결혼과 출산은 '필수'였는지도 모른다. 결혼은 평생의 일류지대사이며, 출산은 한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이었다. 그만큼 출산과 결혼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결혼과 출산은 '선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경제가 급성장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대인들은 '나'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 결여와 이기주의 등의 폐해를 낳게 됐다.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 진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복지정책은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 기피를 부르고 있다.

분명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라고는 하나 이 둘을 완전 배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만 결혼과 출산 등에 두려움과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고민을 덜어 줄 결혼과 육아에 관한 지침서 2권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사랑과 연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를 권한다. 스님은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하라는 결혼관 등 '쿨'한 사랑을 제시한다. <엄마가 부처다>는 아이는 영적 스승이며 엄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수행을 하는 부처라고 말한다. 이제 선택의 시대다. 두 권의 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아이 키우기 생활 속 으뜸 수행법



엄마가 돼 아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더 없는 기쁨이다. 하지만 잠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엄마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많은 문제가 직면하게 된다. 모든 일정은 아이에게 맞춰야 하고,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더욱이 직장에 나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 맘'이라면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더 심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 마음 또한 편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괴롭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엄마들에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런 내적 고통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오랜 친구와 가족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막상 어떤 문제에 대해 상의하려 해도 대우가 신통치 않거나, 반감지 않은 조언을 하는 등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일쑤다. 좋은 부모가 함께 되자면 남편 역시, 아내가 겪는 심리적·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자

저자인 새러 납달리는 이럴 때 일수록 엄마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는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편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엄마가 정서적 안정을 주고 감정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엄마 자신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고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다. 엄마는 가족을 뒷바라지 하고, 베풀고 또 베풀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을 재충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엄마들이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저자는 책을 통해 불교를 접하면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엄마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별로 쉽게 설명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애와 인내를 요구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엄마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별로 쉽게 설명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애와 인내를 요구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엄마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별로 쉽게 설명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애와 인내를 요구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엄마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별로 쉽게 설명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애와 인내를 요구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엄마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별로 쉽게 설명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애와 인내를 요구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엄마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별로 쉽게 설명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애와 인내를 요구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한국불교의 기초를 찾아서	심정섭	운주사
4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교연구원
5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6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7	젊은 날의 깨달음	해민	클리어마인드
8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9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10	달 절집 밥상	대만	웅진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진정한 불교 수행은 삶의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 봤다. 그래서 엄마들은 불자가 아니어도 이미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라는 존재는 엄마를 끊임없이 현재의 순간으로 끌어당기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며 생각하게 만든다. 아이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영적 스승이며, 이 영적 스승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엄마는 바로 부처다. 엄마가 부처다 | 새러 납달리 지음 | 노혜숙 옮김 | 아침이슬 퍼블 | 1만2000원

불교달력·불교용품·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불교서적

- 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이상)
- 경만주사금지 능엄신주 @7,000원(10세이상)
-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세이상)
- 신요장구대다라니(한글) @14,000원(10세이상)
- 경전서적 제26호
-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세이상)
-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세이상)
- 반야심경 한문 탐사경 @150원(500명이상)
- 자비도량참법 @9,000원(20세이상)
- 금강경 독송용 @2,400원(50세이상)

불교용품

- 공단등 (8cm) @3,000원(96개이상)
- 바림등 (8cm) @3,000원(96개이상)
- PVC 집게등표 (100매) @20,000원
- 릴라등표 (100매) @6,000원
- 무연무취향 (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 일반달등 (1Box 70개) @105,000원
- 파라판양초 (1.8 & 12봉) @53,000원
- 주목 백팔주 @8,000원(20개이상)
- 불자수지독송(달라) @500원(200부이상)
- 생일카드 @300원(1,000명이상)
- 금강경달라니 @150원(600부이상)
- 삼배심재품이 @600원(200개이상)

불교달력

- 국6절(대) (30.5x31.0cm)
- 12절 (25.8x26.5cm)
- 차절이 (9.0x15.5cm)
- 미니 (8.9x 9.5cm)
- 다이러리 (9.5x13.4cm)
- 탁상 (26.2x19.0cm)
- 한지 (30.0x45.5cm)
- 행복으로 가는 길(18.1x20.0cm)

12월 1,000원 (1,000부 이상)

- 8호 관음도
- 16호 부처님의 꽃
- 14호 반야동자

동진기획·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시요

☎(051) 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6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신체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전문은 현불상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